

SOOP 수퍼스 전새얀 “새로운 기회…나만의 무기 만들 것”



최근 두 시즌 출전 기회 줄며 아쉬움…새 등지서 반등 다짐 수비·블로킹 경쟁력 강화 집중…“기존과 다른 모습 증명”

“살아남으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프로배구단 SOOP 수퍼스에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전새얀이 다시 한번 코트 위 경쟁에 뛰어든다. 최근 두 시즌 출전 기회가 줄어들며 아쉬움을 삼켰던 그는 SOOP에서 찾은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전새얀은 2014~2015시즌 신인드래프트에서 IBK기업은행의 1라운드 5순위 지명을 받아 프로에 데뷔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에서 오랜 기간 활약하며 V리그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2019~2020시즌부터 2024~2025시즌까지 6시즌 연속 세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2021~2022시즌에는 225득점을 올렸다. 프로 통산 기록은 12시즌 312경기 956세트 1237득점 공격성공률 33.04% 리시브효율 29.164% 등을 기록하며 공수에서 꾸준히 자신의 몫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두 시즌은 쉽지 않았다. 2024~2025시즌 24경기에 출전한 데 이어 2025~2026시즌에는 18경기 출전에 머물렀다. 데뷔 시즌을 제외하면 프로 생활 중 가장 적은 경기 출전이었다.

충분한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아쉬움도 컸다.

2025~2026시즌을 마친 뒤에는 선수 생활의 갈림길에도 섰다. FA 자격을 얻은 전새얀은 원소속 팀 도로공사와 연봉 3000만원에 계약했다. 양측은 최저 연봉으로 FA 계약을 체결한 뒤 트레이드 또는 방출을 통해 새로운 팀을 찾는 방안에 합의했고, SOOP이 영입 의사를 밝히면서 방출 후 이적이 성사됐다.

최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만난 전새얀은 “계속 경기를 뛰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많은 경기를 뛰었던 시즌도 있었다”며 “그러다 계속 부진하고 출전 기회도 줄어드니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새로운 기회를 받은 만큼 더 큰 욕심도 생긴다. 경기도 많이 뛰고 싶다”고 말했다.

전새얀은 “SOOP에 오게 됐을 때 걱정 반, 설렘 반이었다.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많았다”며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제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새로운 선수단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도로공사에서 함께 생활했던 선수들이 SOOP에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새얀은 “도로공사에서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많아 처음 왔을 때부터 적응하기 편했다”며 “(고)예림 언니도 있고 송은채와는 룸메이트를 했던 적도 있다. 대부분 친분이 있었던 선수들이라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세터들과의 호흡도 빠르게 맞춰가고 있다. 이원정 역시 도로공사 시절 함께 코트를 누빈 경험이 있다. 그는 “이원정과는 이미 함께 뛰어봤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는 데 편한 부분이 있다. 원정이라도 전부터 계속 같이 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며 “박수빈, 박사광과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맞춰가고 있다. 모두 좋은 세터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주전 경쟁은 만만치 않다. SOOP에는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이 적지 않다. 전새얀 역시 코트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전새얀은 그 해답을 수비와 블로킹에서 찾고 있다. 그는 “아웃사이드 히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선수들보다 특별한 정점이 하나는 더 있

어야 한다”며 “감독님이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한다. 특히 아웃사이드 히터는 수비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리시브에서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따라 경기 출전 기회도 달라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공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블로킹에도 욕심을 내보려고 한다”며 자신만의 무기를 하나씩 늘려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팀 내 위치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선배들을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후배들을 이끌어야 하는 베테랑이 됐다.

전새얀은 “예전에는 선배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위치였다. 지금은 제 것을 챙기기도 바쁘지만 후배들에게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팀 분위기를 이끌어가고자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담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지금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이제 전새얀의 시선은 다시 코트를 향한다. 새로운 팀에서 주어진 기회를 잡고 자신의 경쟁력이 여전히 V리그에서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전새얀은 “새로운 기회를 받은 만큼 욕심이 생긴다. 무엇보다 경기에 많이 뛰고 싶다”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광주 장애인사격, 전국체전 사전경기 ‘금빛 명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장애인사격이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과 비공인 패럴림픽 신기록을 잇달아 작성하며 금메달 3개를 명중시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은 17~18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공기소총 입사(R4) 개인전과 단체전, 공기소총 복사(R5) 단체전을 모두 석권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격 종목은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2026 제10회 창원장애인사격세계선수권대회’ 일정에 따라 지난 16일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사전경기로 진행된다.

금빛 총성의 중심에는 박승우(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가 있었다. 박승우는 21명이 출전한 공기소총 입사(R4) 개인전 본선에서 60발 합계 637.3점을 쏘아 종전 대회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전체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에서는 한층 더 빛났다. 박승우는 24발 합계 254.2점을 기록하며 종전 비공인 패럴림픽 신기록인 253.3점을 0.9점 끌어올렸다. 임주현(인천광역시청)과 서훈태(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승우의 상승세는 단체전까지 이어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은 공기소총 입

박승우 R4 개인전 비공인 패럴림픽 신기록으로 정상

박동안·이정제 등과 R5 단체전까지 석권…박혜화 ‘동’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전경기인 공기소총 입사(R4)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장애인사격팀. 왼쪽부터 이정제, 박승우, 박동안. 사진제공=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R4) 단체전에서 박승우가 637.3점, 박동안이 629.9점, 이정제가 627.1점을 기록하며 합계 1894.3점으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1890.4점을 기록한 인천광역시청은 3.9점 차로 따돌렸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1878.5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은 대회 첫 출전 중 목부터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며 기본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어 18일에는 혼성 공기소총 복사 R5 단체전 SH2(육성 종목) 결선전에서 박승우가 638.1, 이정제가 635.3, 박동안이 633.0, 신연우가 632.3점을 쏘아 합계

1906.4점으로 인천(1902.0)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혼성 공기소총 복사 R5 개인전 SH2(육성 종목) 결선전에서는 박승우가 254.3점을 쏘면서 이명호(충북·254.4)에 이어 은메달을 따냈다.

박혜화(한국전력공사)도 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다. 박혜화는 R2(공기소총 입사·SH1) 개인전에서 3위를 차지하며 생애 첫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격팀은 상승세를 이어 종목 석권에 도전한다. 19일 화약소총 복사(R9)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김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장애인사격팀 감독은 “대회 첫 스타트를 잘 끊어준 선수단에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며 “이어지는 종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컨디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상득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국내 대회에 이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원점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장애인사격팀의 금메달 획득을 축하한다”며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달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2027 코리아컵 3라운드 천안시FIFC와의 경기에서 광주FC 최정욱이 득점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광주FC, 울산 돌풍 잠재우고 코리아컵 8강 도전

오늘 울산종합운동장서 16강전…로테이션 가동 전망

프로축구 광주FC가 코리아컵 무대에서 분위기 반전과 함께 8강 진출에 도전한다. 광주는 19일 오후 7시 울산종합운동장에서 K3리그 울산시민축구단을 상대로 2026~2027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 원정 경기를 치른다.

현재 광주는 반전이 절실하다. 직전 포항스틸러스와의 K리그1 23라운드 홈경기에서 21개의 슈팅과 10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하며 적극적으로 상대 골문을 두드렸지만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1~2로 패했다. 충분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골 결정력을 끌어올려 승리라는 결과까지 가져오겠다는 각오다.

이번 16강전에서는 선수단의 고른 활용도 예상된다. 광주는 오는 23일 인천유나이티드와 중요한 리그 홈경기를 앞두고 있는 데다 무더운 날씨와 원정 이동까지 고려하면 주축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

앞서 천안시FIFC와의 코리아컵 3라운드에서도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1~0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다. 당시 기회를 얻었던 리영직과 김우진, 프리드온슨 등이 좋은 활약을 펼친 뒤 주전 경쟁에서 존재감을 키운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새로운 얼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특히 전반기 꾸준히 출전했던 김윤호와 박성현, 안혁주, 홍용준 등 젊은 선수들이 다시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

최근 합류한 미드필더 김종석과 외국인 공격수 사이토스키의 팀 적응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다.

경험 많은 센터백 임승겸과 안정감을 갖춘 골키퍼 김동화 역시 로테이션을 위한 든든한 선택지다.

다만 상대 울산시민축구단은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다. 올 시즌 K3리그에서 5승 4무 9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코리아컵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3라운드에서 K리그1 2위를 달리고 있는 울산HD FC를 1~0으로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단판 승부에서의 저력을 입증했다.

광주에 이번 경기는 단순한 8강 진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포항전 패배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분위기를 바꾸는 동시에 새로운 선수들의 경쟁력을 확인해 향후 리그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다.

광주가 울산시민축구단의 돌풍을 잠재우고 코리아컵 8강에 오르며 정상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광주 서구청 펜싱팀, 전국대회서 ‘금·은’

정지윤·김채린, 대통령배 여자 에페 개인전 나란히 입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서구청 펜싱팀이 대통령배 전국대회 여자 에페 개인전 금·은메달을 휩쓸며 전국 최강의 저력을 과시했다.

정지윤과 김채린은 최근 경남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6회 대통령배 전국남·녀 펜싱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선발대회’ 여자일반부 에페 개인전에서 나란히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정지윤이 김채린을 15~1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 김채린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총 21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서구청 선수들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잇달아 제압하며 결승 무대를 ‘집안싸움’으로 만

들었다. 특히 지난해 팀의 주축 선수들이 은퇴하면서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정지윤과 김채린이 나란히 결승에 오르며 세대교체 이후에도 탄탄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정지윤의 기세는 예선부터 매서웠다. 예선을 전승으로 통과한 정지윤은 본선 64강에서 유단우(울산시청)를 12~7로 꺾은 데 이어 32강에서 양지예(경남대)를 15~8로 제압했다.

16강에서는 신현아(화성시청)를 상대로 점점 끝에 12~11로 승리했고, 8강에서는 노선경(충북도청)을 15~8로 물리치며 준결승에 올랐다. 4강에서도 이혜인(울



산시청)과 치열한 승부를 펼친 끝에 15~14 한 점 차 승리를 거두며 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김채린도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예선을 3승 3패로 통과한 뒤 본선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64강에서 최인정(강원도청)을 15~12로 꺾었고, 32강에서는 김소연(한국체대)을 15~5로 완파했다. 이어 16강에서 김향은(전남광주특별시

청)을 15~10, 8강에서 박윤(중원대)을 15~12로 제압했다. 준결승에서는 이신희(강원도청)에게 15~10 승리를 거두며 정지윤과의 결승 맞대결을 성사시켰다.

우승을 놓고 펼쳐진 서구청 펜싱팀의 맞대결에서는 정지윤이 웃었다. 정지윤은 김채린을 15~11로 꺾으며 대통령배 정상에 올랐고, 김채린도 값진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서구청이 대회 여자 에페 개인전 1~2위를 독식했다.

박광현 서구청 펜싱팀 감독은 “대통령배 개인전에서 한 팀이 1~2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강영미 등 팀의 최고 선수들이 은퇴하면서 걱정도 있었는데 선수들이 보여준 결과가 놀랍다”며 “앞으로 남은 대회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